



보도 일시	2022. 9. 21.(수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9. 21.(수)
담당 부서	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 장 정재환 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 홍석구 (044-201-2340)

흰우유 가격 인상 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

- 유가공품 위주의 가격 인상 유도, 유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 및 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추진 계획 -

〈보도 주요내용〉

국민일보 9월 21일(수) 기사 “흰우유 500원 안팎 인상 가닥... ‘밀크플레이션’ 현실화”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최종 합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흰우유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. 지난해 원유가격을 ℓ 당 21원을 올렸을 때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200원이 올랐다. 전례를 참고했을 때 원유가격이 ℓ 당 47~58원 오르면 흰우유 가격은 500원 정도 인상될 수 있다.

〈농림축산식품부 입장〉

현재 생산자-유업체 간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1년 사례만을 기준으로 흰우유 가격인상폭을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유업체는 흰우유 가격을 인상할 때 원유가격뿐만 아니라 물가, 인건비, 유류비, 각종 부자재비용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원유가격 대비 흰우유 가격인상폭은 매년 달랐습니다. 실제 시장 선도업체인 서울우유에서 최근 10년간 원유가격 인상 시 흰우유 가격 (대형마트 권장소비자가격 기준)을 인상한 사례*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원유 가격 인상액 / 흰우유 가격 인상액(원/ℓ): ('11) 130 / 150 (1.2배), ('13) 106 / 220 (2.1배), ('21) 21 / 140 (6.7배)

정부는 진행 중인 원유가격 조정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공품 위주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 유업체와 협력하는 한편, 국산 원유를 사용한 고급 유제품 개발 등 유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(R&D)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정부는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, 내년 1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